

# “최대 90% 할인”... 크리스마스 기획전 승부수

유통업계, 할인 폭 확대로 특수 잡기 저가 소비 트렌드 확산 영향

**롯데마트** 완구 최대 70% 할인  
**SSG닷컴** 전년대비 할인폭 10% ↑  
**쿠팡** 시즌·푸드상품 기획전 구성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 토이저러스 매장에서 관계자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 /롯데마트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유통업계가 다양한 기획전을 펼치며 크리스마스 특수 잡기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할인 폭을 더욱 확대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연말 특수를 노리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연말 특수를 잡기 위해 유통업계가 크리스마스 기획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 크리스마스 기획전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 할인 폭이 작년보다 더 커졌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롯데마트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완구점 토이저러스는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기 완구 브랜드 상품 2000여 종을 최대 70% 할인가에 선보인다.

지난 2023년과 비교했을 때, 토이저러스의 크리스마스 기획전 장난감 할인 폭은 무려 20%나 더 커졌다.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작년 인기 완구 제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 바 있다. 한편, 올해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접포별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도 진행한다. 롯데아울렛 기흥점에서는 이달 25일까지 ‘레고 홀리데이 팝업스토어’를, 토이저러스 김포공향점에서는 ‘슈퍼루키 BIG4 캐릭터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토이저러스 서울역점에서는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톰과 제리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SSG닷컴 역시 올해 크리스마스 상품 최대 할인 폭을 작년 대비 10% 더 늘렸다. 앞서 SSG닷컴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기획전 ‘X-mas 기프트 가이드’ 행

사를 진행하며 패션·뷰티·명품·완구 등 제품을 최대 80% 할인가에 제공했다.

올해 SSG닷컴은 최대 할인가를 90%로 늘려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실시한다. 올해는 연령대별 인기 제품군을 나눠 제안하는 ‘쇼핑 익스프레스’ 기획전을 통해 20대와 30대 연인들을 위한 패션 제품,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제품, 어린 자녀를 위한 완구 제품 등을 선보인다.

쿠팡 역시 올해 더 높은 할인가를 적용했다. 앞서 쿠팡은 작년 말, 크리스마스 트리·조명 등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과 가전·뷰티 등 가족과 연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상품을 한데 묶어 최

대 50% 할인가에 제공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과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위한 푸드 상품 기획전 두 가지를 구성해 진행하고, 각 기획전 모두 최대 50% 할인가를 적용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 맞이 장난감을 최대 80% 할인가에 진행하는 ‘토이페스타’ 기획전을 추가해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전년과 다르게 올해 크리스마스 기획전 할인 폭을 확대한 배경에는 최근 저가 소비 트렌드가 확산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온라인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기업 케이피알(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고물가와 관련된 키워드의 언급량이 지난 2024년 1월 44만 8124건에서 11월 86만 213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케이피알 관계자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는 오히려 둔화했으나, 물가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물가지수의 완만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이 부담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is4187@metroseoul.co.kr

## SK바이오팜 프로엔테라퓨틱스와 방사성의약품 공동연구

SK바이오팜은 바이오텍 기업 프로엔테라퓨틱스와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SK바이오팜과 프로엔테라퓨틱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전임상 단계의 신약 후보물질을 최대 2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SK바이오팜은 신규 기술을 접목해 기존 약물이 충족하지 못했던 의료적 수요를 해결하고, 방사성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프로엔은 고유 기술 플랫폼인 ‘아트바디’를 활용한 이중 표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종양 선택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SK바이오팜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무신사 스탠다드 롯데백화점 동탄점 개장

캐주얼웨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가 이달 19일 롯데백화점 동탄점 3층에 새로운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무신사 스탠다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개점한 이후, 국내 제조·유통 일원화(SPA) 브랜드가 입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신사 스탠다드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는 맨·우먼·키즈 제품군 2024 가을·겨울 시즌 아우터와 다양한 인기 상품을 선보인다. 영유아 비중이 높고 평균 연령이 30대 중후반인 화성시의 특성상 ‘영 패밀리’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무신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판콜에스’ /동화약품

## 동화약품 ‘판콜에스’, 2년 연속 종합 감기약 매출 1위

동화약품은 종합감기약 ‘판콜에스’가 2년 연속으로 감기약 시장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판콜에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3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약 1430억 원 규모의 국내 감기약 시장에서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판콜에스는 전년 동기에도 감기약 매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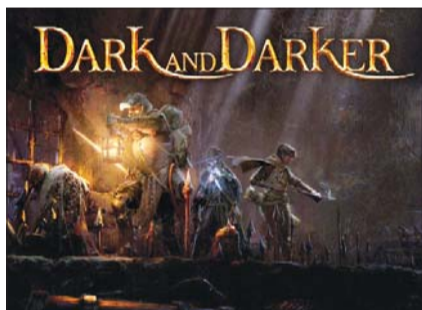
또 동화약품 자체 매출 집계 기준으로 2023년 ‘판콜’ 제품군의 매출액은 511억에 이른다.

/이청하 기자

# ‘넥슨 개발자료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검찰 신문 진행

넥슨 P3 개발자료 유출 혐의 인정 다크 앤 다크 사용 여부엔 불송치

아이언메이스 “넥슨 주장 모두 허위” 넥슨 “콘텐츠 업계 생태계·문화 훼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크 대표이미지 /아이언메이스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인 ‘P3’의 자료를 유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혐의를 받은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검찰의 4차신문이 진행됐다. 이날은 소송 처음으로 양측이 직접 신청한 증인이 참석해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들은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으로 넘겨져 양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검찰의 신문이 이

어졌다. 지난 9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이후 이어진 행보다.

최씨 등은 넥슨에서 근무하던 당시 담당하던 P3 프로젝트 개발 자료를 무

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은 최씨가 퇴사 한 이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유출한 자료로 ‘다크 앤다크’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 최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최씨와 다른 관계자 등이 넥슨에서 ‘P3’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 법인, 또다른 관계자 B씨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다만 검찰은 아이언메이스가 ‘P3’ 데이터를 실제로 ‘다크 앤 다크’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또 다

크앤다크와 P3가 유사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양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 가운데 아이언메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넥슨의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임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이번 사건을 창작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인벤티지랩, 비만치료제 제형 특허 확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우존스 월드지수’ 편입

장기지속형 주사제형 구현 기술

인벤티지랩이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 입자 및 이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인벤티지랩의 특허는 회사 고유의 플랫폼 기술인 ‘IVL-드러그플루이딕’을 통한 차별화된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 입자 제형 제조 원천 특허이다. 특히 IVL-드러그플루이딕으로만 구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특허 권리로 기술적 진입장벽을 확보해, 관련 제품 제조 경쟁력을 장기

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인벤티지랩은 고품질의 고분자 마이크로 입자를 활용해 장기지속형 주사제형을 구현하는 기술로 기존 약물(AP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 지속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제형화 제조 플랫폼인 IVL-드러그플루이딕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및 해외에 총 75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현재까지 27건의 특허가 등록되는 등 관련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이세경 기자 seilee@

4년 연속 편입... 상위 1% 등급 획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표 평가 지표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에 4년 연속 편입됐다고 17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1년 이래로 4년 연속 월드 지수에 편입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우선 환경 부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명과학 서비스 분야 내 상위 1%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11월, ‘2050년 넷 제로 달성’ 목표를 발표한 후 사업장 운영 및 제조 에너지를 매년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 사용 등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개선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기후관련재무공시 협의체(TCFD) 보고서를 통한 위험 및 기회 분석, 지속가능성장계획위원회(SMI) 참여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확대하고, 자연자본(TNFD)에 기반한 관리 전략을 수립했다.

/이청하 기자